

NOSTALGIA SYNOPSIS

1 Line:

늦둥이 딸과 함께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아가던 60 세 여인이 이웃집에 이사온 20 세 청년에 의해 마약과 퇴폐적인 성의 세계에 빠지며 자신만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인생의 문을 열게 된다.

Short:

자신의 딸 쿠퍼의 나신을 훑쳐보며 자위하는 20 세 옆집 청년 라일리를 목격하면서 차갑게 식어 있던 내면의 걱정을 느끼고, 결국 돌발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의 자위 행위를 도와주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60 세 여인 한나. 믿기 힘든 나이차이를 극복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젊은 라일리로부터 도발적인 섹스를 배우고, 항정신성 약물 등에 빠져들며 정신적으로 재설정(Reset) 된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든다. 새로운 사랑에 흠뻑 빠져있는 와중, 경제적인 이유로 타지에서 일을 하던 남편 - 매디슨이 돌아오고, 한나와 라일리의 관계를 인지하게 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현대사회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매디슨은 담담하게 이혼을 선언하고는 가족을 떠난다. 무미건조했던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시작한 식당 주방일, 라일리와 퇴폐적인 생활, 그리고 지금껏 꿈만 꾸왔던 예술에의 경험 등을 누리며 점차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여인이 되어 가는 한나. 그런 엄마 - 한나를 이해하며 새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모더니즘 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딸 쿠퍼는 근교 목장에서 일을 하는 아빠 - 매디슨을 방문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멋진 흑인 여자친구와 함께 진정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매디슨의 모습을 확인한다. 마약과 섹스로 점철된 남녀관계를 지속하던 한나와 라일리는, 한나의 마약 중독과 라일리의 새 남자친구 먼로의 등장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 하지만, 한나, 라일리, 먼로 세 명이 동침을 하게 되며 상황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 하지만 한나를 '엄마'라 부르며 그녀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표현하는 먼로, 쿠퍼에게 연정을 버리지 않고 있던 라일리는 정신 착란과 배신감으로 인해 경악하는 한나의 식칼에 한순간에 난자 당하게 되고, 떠나간 라일리의 영혼을 기억하며 한나는 새로이 얻은 제 2 의 삶을 살아 가게 된다.

Long:

사뿐히 움직이는 소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눈동자. 창문을 통해 드러나는 소녀의 나신. 눈동자의 시선이 흔들린다. 야릇한 신음소리와 함께 더욱 빠르게 흔들리는 시선.

간호 조무사 일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60 세 여인 한나, 늦둥이 17 세 딸 쿠퍼가 읽어주는 중년 여교사와 중학생들의 성관계 뉴스를 듣고는 경악한다. 그러던 하루, 자신의 뒷마당 나무 덩굴 뒤에 선 채 자신의 딸이 옷 갈아입는 것을 훑쳐보며 자위를 하고 있는, 새로 이사온 이웃집 청년 라일리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며 라일리와 간간히 대화를 섞어가던 한나는 오랜 기간 느끼지 못했던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걱정을 견디다 못해 예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도발적인 행위로 그 청년의 자위 행위를 도와주게 되고, 그 계기로 엄청난 나이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는 등, 그 둘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정상위 밖에 할 줄 모르는 한나의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대마초를 피우고 한나를 적극적으로 걱정의 세계로 이끄는 20 세 청년 라일리, EDM 클럽이라는 젊은이들만의 공간에서 건디기 힘들어 하는 한나를 지켜보며 본격적인 마약의 신세계를 소개해주고, 젊은 청년 애인을 갖게 된 한나는 그가 소개하는 신문물을 거부감없이 소화하기에 이른다. 한편 자신을 훑쳐보며 자위를 하던 라일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던 쿠퍼는 언제부터인가 익숙치 않은 행동패턴을 보이는 엄마 - 한나의 변화에 의아해 하고, 결국 엄마와 라일리의 파격적인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신세대의 의식을 바탕으로 엄마의 새로운 삶을 마음으로 지지하는 쿠퍼,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 공감과 이해로 어우러진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날, 직장을 찾아 타주에서 홀로 살아오던 남편 - 매디슨이 돌아온다. 사회부적응과 만성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에게 돌아와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던 매디슨은 얼마지 않아 한나와 이웃집 청년 - 라일리의 관계를 목격하게 되고,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하게 이혼을 통보하고는 가족을 떠나간다. 한나와 쿠퍼 역시 이혼 통보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을 우려하기 시작하는 라일리와는 반대로 더욱 마약의 세계에 빠져드는 한나, 자신의 모습을 그려준 라일리의 그림에 영감을 받고, 자신도 그림을 그리며 예술에 대한 자신의 숨겨진 열망을 알아차리게 된다. 한편 한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빠를 방문하는 쿠퍼, 모터사이클을 모는 모습이 18 세 성인으로서의 성숙미를 느끼게 한다. 근교 목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건강한 육체와 정신, 행복한 미소를 되찾게 된 아빠를 보고 흡족해 하는 쿠퍼, 자신의 앞에 나타난 카우보이 사내 토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행복하다. 아빠와의 저녁식사에 불쑥 나타난 코스타리카 여인 - 가브리엘라에게 일종의 의심과 시샘의 눈길을 보내나, 진정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녀의 진심을 깨닫고 아빠의 새로운 삶을 마음으로 축복한다.

라일리의 마음이 예전같지 느껴지지 않는 한나, 마약에 더욱 의존하는 자신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라일리에게 집착하지만 어느날 새벽 라일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음을 목격한다. 라일리와 의 충돌도 잠깐, 라일리가 소개시켜준 새 남자친구 - 먼로와 함께 술과 마약파티를 하게 되면서 3 인이 함께하는 변태적이며 퇴폐적인 성의 향연으로 또다시 빠져든다. 향락의 밤이 지나가고 새벽 동이 틀 무렵, 자신을 '엄마'라 부르며 변태적 관계성을 성립시키려는 먼로를 식칼로 찌른 후, 쿠퍼의 방으로 들어가버린 라일리를 따라 들어가 그마저 식칼로 찢러 버린다.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착란을 일으킨 한나가 벌인 살인극을 덮으려고 시체들을 신고 차를 달리는 쿠퍼와 카우보이사내 - 토니.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아틀리에에서 작품에 열중하는 노년의 여인.

높이 나는 갈매기를 바라보는 비키니 여인의 건강하게 태닝된 살결. 탄탄한 몸매의 한나가 머릿칼을 휘날리며 바다를 바라보다가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에 뛰어든다.

젊은 청년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인생에 대한 깨우침과 마약으로 인해 얻은 정신의 해방, 떠난 라일리의 영혼을 추억하며, 남은 여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 한나, 그녀의 얼굴에 행복이 감돈다.